

##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요즘은 어느 공공기관을 가든지 ‘청렴’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직자가 됨과 동시에 당연히 실천해야 될 가치인 ‘청렴’을 왜 이토록 열심히 교육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우리네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온갖 부정 부패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가의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국가투명성 지수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적 개념으로 지방행정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이 책이 200년이라는 시대를 뛰어 넘어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이유는 다산의 사상과 이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사구시적 혜안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그의 사상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방대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으며 풍부한 사례의 인용과 갖가지 미덕으로 채워져 있다. 악습과 병폐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 현실에 대한 그의 뼈저린 고뇌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고민과 해결책의 중심에는 늘 ‘민(民)’이 있다.

목민심서는 총 12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편당 6조항이 있어서 총 7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책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일관된 가치들이 있다.

첫째, 청렴이다. 청렴이 공직자의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였고, 청렴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청백리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청렴을 통해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강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수법(守法), 즉 준법정신이다. 성공적인 통치란, 엄격한 법 집행과 민생을 돌보는 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법을 존중하되, 부당한 집행은 유보하여 공익을 도모해야 한다. 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본래의 취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법치를 중요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장 중요시했던 다산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애민정신이다. 정약용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 노인을 봉양하는 양로를 중요시했고, 향후 국가의 미래가 될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진궁을 중요시했다. 위정자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다산의 정신은 현대 복지제도에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목민심서에는 놀랍게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도 손색없는, 200년 전의 시대적 상황과 가치들이 담겨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존경받는 것이야 말로 고

전이 지닌 힘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가끔씩 본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을 저지른 사례를 접할 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는 한다. 다산이 강조했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 인권보장 등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가치를 공직자들 가슴에 새기고 매사에 ‘민(民)’을 중심에 둔다면, 우리 사회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 「공직자가 청렴하면 청와대도 안 무섭다」를 읽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입사한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은 지금  
친지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내 직장이 “청렴하지 않은 기관”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조명 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  
하였다. 특히 이 책의 제목대로 공직자가 청렴하면, 즉 나의 의지만 있으면  
내외부의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 책을 선택하게  
하였다.

저자는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는 “물질의 부패를 넘어  
생각의 부패까지 청산하는 것”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부패를 “실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다면 이제는 “생각”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됨으로, 공직자란 매 작은 순간  
이라도 생각부터 청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일을 집행할 때 규정과 근거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그저 관행을 따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아직 신입직원으로 하는 일이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매 순간 작은 일이라도 규정과 근거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나 자신을 다잡고 있다.

저자의 말 중에 와 닿았던 부분은 “공직자는 능력보다도 청렴이 더 우선  
이다”라는 부분과 “관행 뒤에 숨지 마라”라는 부분이었다.

현재는 관행 뒤에 숨지 않는 신입의 모습으로 몇 년 뒤에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 자신”부터가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